

就 任 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洪 性 一



壬申年 希望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高分子를 깊이 專攻하시는 高分子 同人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無窮한 發展과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學問과 德望에 있어서 未熟한 本人이 本學會 第9代 會長에 就任하게 되어 莫重한 責任感을 痛感하는 바입니다. 微力이나마 最善을 다하여 學會發展에 힘쓰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高分子學會는 1976年 創立한 以來 日本高分子學會와 高分子共同 심포지움 2回, 그리고 IUPAC과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1996년에는 IUPAC macromolecular symposium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학회와의 빈번한 학술교류 발표회를 가질것에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짧은 歷史에도 不拘하고 다른 어떤 學會보다도 長足の 發展을 期할 수 있었던 것은 歷代 會長團, 任員들의 獻身의인 勞力과 많은 會員들의 積極의인 協助와 後援으로 이루어진 結晶體라고 생각합니다.

今世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21世紀를 向하여 急進的으로 科學文明이 변모하고 있는 이때 世界 先進各國의 날로 發展해가는 科學技術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의 現實은 아직 未洽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우리나라의 高分子 分野에 있어서의 學術, 技術, 工業의 水準은 이제 겨우 中進國을 벗어나 先進隊列에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의미에서 本學會 會員의 使命은 매우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特히 政府에서는 今世紀末안에 우리나라가 先進 七個產業國안에 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계획을 세우는등 G7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科學技術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며 막중한 責任을 느끼게 합니다.

特히 新素材 分野에 있어서의 開發研究는 高分子 同人의 至大한 關心事이며 우리 會員들이 叡知를 모아 解決하여야 할 課題입니다.

其間 學會運營에 있어서 國內 類似 關聯學會와의 같은 場所에서 學術發表를 가진적이 있었고 국제학술 발표회 개최에 있어서 後援의 形態로 國內 學會간의 協調가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국내 학회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지난해에는 동서화해 무드 속에서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가입되고 南北간의 政治, 經濟, 文化, 體育, 科學의 交流가 그리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特히 化學關係 南北學術 交流를 가상하여 학회 相互間에 긴밀한 今年度 本學會는 새로운 정관에 따라 幹事長 中心의 學會運營을 하는 해입니다. 學會의 核心事業인 학술발표회는 년 2회, 학술지 6회, 기술지 6회 발간되겠으며 今年에는 高分子學術 英文誌 發刊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가능하면 今年中에 발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高分子 機器分析 세미나, 高分子 토론회, 高分子 夏季大學 세미나, 高分子 특별세미나 등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알찬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幹事長을 맡으신 최철립 박사(KIST), 總務理事이신 김영하박사(KIST)는 本學會의 運營에 많은 經綸을 쌓으신 有能한 분들입니다. 學會의 運營에는 손태원박사(KIST), 이석현교수(아주대), 강용수박사(KIST), 이두성교수(성균관대), 장정식교수(서울대), 진인주교수(인하대), 박오욱교수(KAIST), 노시태교수(한양대) 등 젊고 의욕적인 분으로 幹事會를 構成, 學會發展에 獻身할 수 있도록 組織하였으므로 本學會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會員여러분의 끊임없는 協助를 부탁드립니다.